

韓 경제성장률, 부채증가 속도 못 따라가 中企 대출 연체율 증가 등 곳곳 위기 신호



/유토이미지

‘부채 리스크’ 고조

우리 정부와 기업, 가계 빚을 모두 합한 총 부채가 선진국 가운데 가장 빠른 속도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외 경제 금융위기가 발생하면 가계와 기업 대출 부실이 국가채무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 종합적인 부채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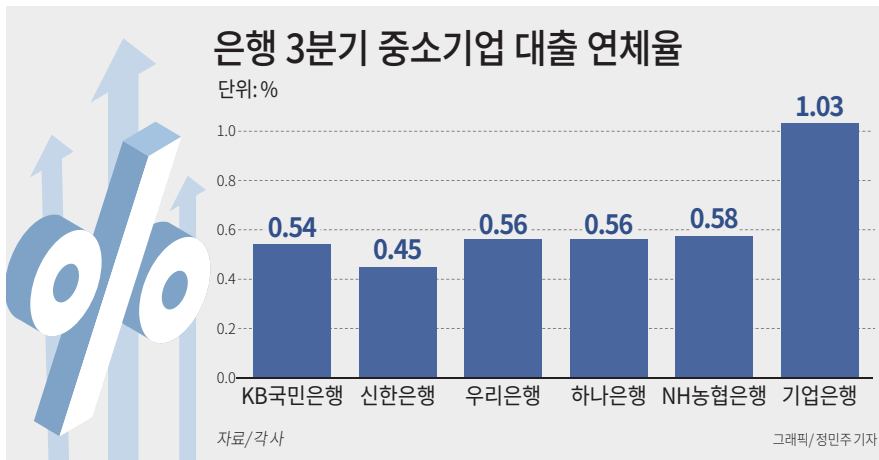
◆ 1분기 총 부채 6373조… 5년새 40% ↑

9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부채 비율은 248%로 주요 20개국(G20) 평균을 웃돌았다. 2019년 4533조원이던 총 부채가 올 1분기 6373조원으로 5년새 40.6%(1840조원) 늘어난 결과다.

1분기 GDP 대비 총부채 비율 248% 민간·기업, 부채 규모·질 악화 추세 “부실 대응 등 종합적인 관리 필요”

총부채 비율이 선진국에서 가장 빨리 상승한 이유는 분모인 GDP가 분자인 부채증가속도를 따라가지 못해서다. 2014~2024년 11년간 명목 경제성장률이 국가 채무 증가율을 넘어선 해는 세차례 뿐이다. 2017년, 2018년엔 경제성장률이 0.2%포인트(p), 0.7%p 앞섰다.

민간 부채도 급증했다. 2021년 GDP의 100%(98.7%)에 육박하던 가계부채 비율은 올해 1분기 89.5%까지 감소했지만, 부채 규모는 472조원(25.8%) 까지 증가했다. 기업 부채도 912조원(46.8%) 증가하면서 2019년 GDP의



100%를 밑돌던 기업 부채 비율이 111.3%까지 치솟았다.

부채의 질도 악화됐다. 한국은행이 지난 9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외부감사 기업 중에서 이자보상배율이 3년 연속 1을 밑돈 한계기업 비중은 17.1%로 14년 만에 최고치였다. 이자보상배율이 1을 밑돌았다는 것은 한 해 동안 벌어들인 돈으로 대출 이자조차 갚지 못했다는 뜻이다. 중소기업만 따지면 한계기업 비중은 2023년 17.4%에서 지난해 18.0%로 0.6%포인트(p) 올랐다.

금융권 관계자는 “소수대기업을 제외하면 기업 수익성이 크게 악화됐는데도 정부는 실업률 상상을 우려해 구조조정에 손을 대지 않았다”며 “그 결과 빚으로 빚을 막아 연명하는 한계기업이 급속히 증가했다”고 말했다.

◆ 생산적 금융 기조에 기업대출 ↑

은행들은 정부의 생산적 금융 기조에 따라 기업대출을 빠르게 늘리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달 말 중소기업대출 잔액은 675조8371억원의

로 전달 말(671조877억원)보다 4조7494억원 증가했다. 아직 올해 하반기가 끝나지 않았지만 6월 말(664조868억원) 대비 11조원 7503억원 급증했다.

은행권에서는 최근 중소기업 대출이 빠르게 늘고 있는 현상을 정부의 ‘생산적 금융’ 확대 기조의 영향으로 보고 있다. ‘생산적 금융’이란 금융사가 단순히 대출을 통해 이자 수익을 추구하기보다 혁신 기업이나 중소·벤처기업 등에 자금을 공급해 실물경제를 지원하는 금융을 말한다.

중소 내 한계기업 비중 18% 달해 주요 은행, 中企 연체율 증가 추세 “지금 경제 상황이 어렵다는 반증”

다만 정부기조에 경기침체까지 겹치면서 주요 은행의 중소기업 연체율이 우려할 만한 수준으로 치솟고 있다.

3분기 국민은행의 연체율은 전 분기 0.42%보다 0.12%p 상승한 0.54%로 나타났다. 이는 2016년 이후 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하나은행과 우리은행 중소

기업 대출 연체율은 국민은행보다 더 높은 0.56%를 기록했다. 모두 2017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신한은행만 유일하게 3분기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이 0.45%로 0.5%를 밑돌았다. 농협은행 연체율은 1분기 0.96%, 2분기 0.70%보다 내렸지만 5대은행 가운데 가장 높은 0.58%를 기록했다.

특히 중소기업 대출이 가장 많은 IBK기업은행의 중소기업 연체율은 1.03%로 2010년 3분기 1.08%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랐다. 중소기업 연체율이 뛰면서 기업은행의 모든 대출(가계대출 포함) 연체율은 1.00%로 치솟았다.

은행권 관계자는 “최근 생산적금융을 강조하면서 중소기업 대출이 늘어나는 추세가 연체율 증가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줬다고 본다”며 “중소기업 연체율 증가는 경제 상황이 어렵다는 점을 반영한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GDP 대비 기업대출 111%… 외환위기 수준

▶▶ 1면 ‘가계-기업-금융’서 계속

올해 2분기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89.7%로 1분기(89.4%)와 비교해 0.2%포인트(p) 올랐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21년말 98.7%로 100%에 육박했지만, 최근 2년간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1분기엔 89.4%까지 내려갔다가 2분기에 89.7%로 반등했다. 올해 4~6월 집값 상승 기 대감에 주택관련 대출을 중심으로 가계 부채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 가계·기업대출 부실 우려 ↑

그러나 앞으로는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을 함께 볼 필요가 있다. 외환위기 당시 108.6%였던 GDP 대비 기업대출은 올해 1분기 111.3%로 상승했다. 가계부채가 줄지 않는 가운데 기업부채까지 되레 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정부는 생산적 금융 전환 정책

으로 기업대출 비중을 더 키우려 하고 있다. 부동산이나 가계부채로 쏠리는 자금을 혁신기업, 첨단기업, 사회기반시설(SOC) 등 실물경제 성장 부문으로 경제의 생산성을 높이려는 의도다.

거둬들인 내부 부진 속에 대출 이자조차 못 갚는 한계기업 비중은 14년 만에 최대 수준까지 확대됐다.

한국은행이 지난 9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외부감사 기업 중에서 이자보상배율이 3년 연속 1을 밑돈 한계기업 비중은 17.1%로 14년 만에 최고치였다. 이자보상배율이 1을 밑돌았다는 것은 한 해 동안 벌어들인 돈으로 대출 이자조차 갚지 못했다는 뜻이다. 중소기업만 따지면 한계기업 비중은 2023년 17.4%에서 지난해 18.0%로 0.6%p 올랐다. 가계·기업·금융이 서로의 담보가 된 구조에서 위기는 ‘연쇄’가 아니라 ‘동시’에 올 수 있다. /나유리 기자

HRDK 한국산업인력공단
Human Resources Development Service of Korea

기업 성장의 파트너 능력개발전담주치의

우리기업에 맞는 교육훈련을 찾고 계신가요?
HRDoctor가 기업을 진단하고, 적합한 훈련을 처방해드립니다

